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올해 전남에 50개교 운영

전남도교육청, 고교·교육청·지자체·대학 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내년에 모든 일반고로 확대 ...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 지속 추진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방침에 따라 일선 고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중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전면도입키로 하고 최근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 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도 교육청은 이에 대비해 올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50교를 지정·운영하며 내년까지 전남지역 모든 일반고를 연구·선도학교로 확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지역 내 고교·교육청·지자체·대학 등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청·지자체가 공동 참여

하는 교육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선도지구(2지구)를 지속 운영한다. 올해는 에듀테크 선도지구 지정·운영으로 첨단기술과 학교 운영이 접목된 미래학교 교육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별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 구성을 통한 원스톱 진로·학업 설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또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주로 방과 후·주말 수업으로 진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을 학교간 학사일정을 조정해 일과 중 정규교육시간에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

은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학교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강사 인력풀 구축 및 학교 통학여건 조성으로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 운영 및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 설계에 기반한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의 학생 진로·학업 설계 지도 및 교육과정 기획·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 지원을 위한 고교 선택교과 지도 역량 강화 및 부전 공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진로와 연계한 과목 다양화, 소인수 답입제 등 학습 운영 변화, 학생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학점제형 공간 조성 등의 변화가 기대되며, 이미 연구·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모든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육성 나섰다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 제작·배포 ... 설명회도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 길라잡이’ 책자(사진)를 제작·배포한다.
책자는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성,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방안, 체육특기자 선발 방법과 절차,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 등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시 교육청은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나흘 동안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불거진 스포츠계 학교폭력



미투 사건과 관련, 담당 교사에게 스포츠 인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학생선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 등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한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박익수 광주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엘리트 체육 육성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식개선과 학생선수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예방중심의 스포츠 인권교육을 진행, 안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도시재생활 석·박사 과정 인력 양성

석사과정 24명·박사과정 9명 선발 ... 광주시, 5년 간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2021학년도 도시재생활 전공 석·박사 과정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국도교통부가 지난해 주관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대학 공모’ 결과 호남·제주권 거점교육 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일반대학원에 도시재생·부동산학과를 신설하고 석사과정 24명과 박사과정 9명 등 총 33명의 1회 신입생을 선발했다.
광주대 대학원 도시재생·부동산학과 학생들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2개의 도시재생 전공강의실에서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광주대는 광주시에서 2021년도 2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의 지역 거점대학의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

다.
광주대 이명규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장은 “도시 재생사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육성해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 중인 광주대는 글로벌(Glocal) 도시재생 닥터(UR-Doctor)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형 도시재생 실무와 학술·연구가 조화된 실용적 R&D(테스트베드) 연구 진행 ▲지역 수요 맞춤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의 통합적 대학원 운영위원회·리빙랩(Lab) 학사 운영 ▲글로벌 연계 협력의 국제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도시재생 전문인력을 양성에 취업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송원대학교 중앙도서관, 남구민 책나눔 도서기증식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광주 남구청(청장 김병내)과 22일 남구민 책나눔을 위한 도서 '2만권' 기증식을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송원대 중앙도서관은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후 꾸준히 늘려온 도서 중 남구의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서 2만권을 선정해 남구에 기증했고, 이 기증도서는 남구청 및 남구의 작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송원대 제공〉

지스트, 차세대 보안통신기술 순수 국내기술로 선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함병승 교수
절대보안 유무선 통신기술에 적용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함병승 교수는 통신에 있어 무조건적 보안을 담보할 차세대 고전압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최초의 기초실험을 수행하여 검증했다.
이로써 기존 복제불가 원리에 기초하는 양자키 분배 방식과는 달리 기존 통신장비 및 시설과 온전히 호환되며, 무조건 보안을 담보하는 차세대 보안통신기술을 순수 국내기술로 선점했다.

함병승 교수는 2020년 자체개발한 무조건적 보안 고전압키분배 프로토콜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증명해 고전통신 장비 및 시설을 이용한 무조건적 보안통신 실용화에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 검증한 고전압통신 기술은 무엇보다도 현재 상용시스템과 호환되며, 무조건적 보안성을 단일광자가 아닌 고전광원 즉 레이저로 달성하고 현재까지 유일한 절대보안 방식인 QKD 양자키분배를 이중 선로중첩에서 확보한 차세대 보안통신에 관한 것으로 그 기대효과가 크다.
기존 양자암호통신에서는 절대보안 원리가 양

자화된 신호의 복제불가원리에 있었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절대 보안을 신호의 양자화가 아닌 채널의 양자화(양자중첩)에서 확보했고, 키분배 과정이 양자메모리 원리와 동일하게 확정적이며 암호키 생성·교환 속도가 원리적으로 기존 통신데이터 전송속도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인류의 염원인 원타임 패드(One-Time-Pad, OTP)를 실현할 절대보안 통신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2월 18일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콘도명	사 용 체 인	면 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 1개	2,530	1,780
		스위트형 방 2개	3,600	2,6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 2개)	2,480	1,680
		디럭스형 무기명 (방 2개)	3,110	1,880

콘도명	사 용 체 인	면 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리솜 리조트	제 천 포레스트, 덕 산 스키장,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 픽	실버 (24) 방1	2,850	1,680
		골드 (28) 방2	3,210	1,980
		로얄 (34) 방3	4,890	3,4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춘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 (21) 방1	1,980	980
		스위트A (26) 방2	2,120	1,280
		스위트B (31) 방2	2,600	1,380
	로 알 (35) 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 951-3080

팩스 (053) 944-3080